

# 캔버라 한인성당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성체	파 견
21 (지극히 전능하신 주여)	218 (주여 당신 종이)	157 (예수 우리 맘에 오소서)	18 (주님을 부르던 날)

제 1독서 | 느헤미야기 8,2-4.5-6.8-10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이 바로 여러분의 힘>

화답송 |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좌)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

○(우)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 ◎

○(좌)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

○(우) 저의 반석, 저의 구원자이신 주님, 제 입으로 드리는 말씀, 제 마음속 생각,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

제 2독서 | 코린토 1서 12,12-14.27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 알렐루야

복음 | 루카 1,1-4; 4,14-21



오늘의 복음: Luke 1:1-4,4:14-21

Seeing that many others have undertaken to draw up accounts of the events that have taken place among us, exactly as these were handed down to us by those who from the outset were eyewitnesses and ministers of the word, I in my turn, after carefully going over the whole story from the beginning, have decided to write an ordered account for you, Theophilus, so that your Excellency may learn how well founded the teaching is that you have received.

Jesus, with the power of the Spirit in him, returned to Galilee; and his reputation spread throughout the countryside. He taught in their synagogues and everyone praised him.

He came to Nazara, where he had been brought up, and went into the synagogue on the sabbath day as he usually did. He stood up to read and they handed him the scroll of the prophet Isaiah. Unrolling the scroll he found the place where it is written:

The spirit of the Lord has been given to me, for he has anointed me.

He has sent me to bring the good news to the poor, to proclaim liberty to captives

and to the blind new sight, to set the downtrodden free, to proclaim the Lord's year of favour.

He then rolled up the scroll, gave it back to the assistant and sat down. And all eyes in the synagogue were fixed on him. Then he began to speak to them, 'This text is being fulfilled today even as you listen.'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 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존귀하신 테오필로스 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귀하께 순서대로 적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래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종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하느님께서서는 결코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베푸실 때는 한없이 베푸십니다.

조금씩 나누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텅 빈 마음에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충만한 사랑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 신앙 나눔 - “기억이 희망을 부끄럽게 하나요?”

맑은 하늘의 순백색 구름은 참 예쁩니다. 미풍에 실려 떠다니는 모습을 볼 때면 기쁨이 몽글거립니다. 이 순간 존재하는 제가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하늘은 금세 어두워지며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집니다.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세상 부족함 없는 만족감을 느끼다가도 갑자기 원치 않은 상황이 오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에 압도되는 것 말이지요.

얼마 전, 가족과 함께 집안의 문제를 상의하며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는데 마치 지금 일어난 일처럼 긴장이 되었습니다. 방금까지 저희가 누리던 기쁨과 평화는 사라지고,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고 이를 책임질 능력이 충분한데, 그 사실을 잊고 과거 어느 지점으로 달음박질하였던 겁니다. 다 괜찮을 거라는 희망도 같이 사라졌습니다. 상대방을 불신하는 마음도 비집고 올라옵니다. 무엇이 그렇게 이끌었을까요? 바로 기억입니다. 희망을 순식간에 압도하는 부정적인 기억 말입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기억의 정화(淨化)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을 기쁘게 잘 살다가도 과거의 기억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거나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떠오르면, 그때의 일이 마치 이 순간에 똑같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방금까지 멀쩡하던 오늘은 사라지고, 불안한 과거와 미래에 가 있는 상태가 되어 ‘그래, 그때처럼 또 힘들어질 거야.’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지요.

집에서 키우는 진돗개 바람이가 떠올랐습니다. 주택에 살다 보니 대문 안으로 고양이가 드나듭니다. 바

람이는 자기 영역에 침입한 고양이를 매섭게 내쫓습니다. 문제는 다음부터입니다. 고양이가 다녀간 그 시간만 되면 나무 데크에 코를 박고 킁킁거립니다. 고양이가 데크 아래에 있다고 믿으며 발톱으로 나무를 박박 긁어댑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바람이가 기억을 더듬고 있었다는 사실어요. 자기 영역을 침범했던 고양이에 꽃혀서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고양이를 아직도 거기에 있는 듯 착각한 것입니다.

기억에 매여 과거에 멈춰 있는 바람이의 모습에서 저를 보았습니다. 고양이 냄새가 나지 않는 다른 장소도 있는데, 나쁜 기억의 자리에서만 맴도는 바람이가 안쓰럽고 애처로웠습니다. 산책 나갈 때도 다른 때 같으면 신나서 뛰어갈 텐데, 데크 쪽만 쳐다보며 미련을 둡니다. 신났던 오늘의 기억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어제의 나쁜 기억과 내일 또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만 있을 뿐! 바람이는 저에게 부정적인 기억이 희망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로마 5.5)라는 말씀을 이번 희년의 주제로 제시하셨습니다. 과연 우리에게겐 나쁜 기억만 있을까요? 나쁜 기억조차 자기 삶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껴안으며 희망을 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자유워질까요.

“인간은 본시 연약한 것이므로 제아무리 훈련이 되었다 할지라도 기억을 가지고는 실패하기가 쉬우니, 생각을 끊고 고요와 평화 속에 있던 마음도 변하고 어지러워지는 것은 기억 때문인 것이다”(십자가의 성 요한, 「가르멜의 산길」 중).

박지현 요세피나

##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에 대한 봉헌문 - 성 소화데레사

“교회에는 심장이 있고 이 심장에는 사랑이 불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교회의 모든 지체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을,

사랑이 꺼질 지경에 이른다면, 사도들은 복음을 다시는 전하지 못할 것이고

순교자들은 피를 흘리려 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은 모든 성소를 포함한다는 것, 사랑이 모든 것이라는 것, 사랑은 모든 때와 모든 장소를 포함한다는 것,

즉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 예수님, 나의 사랑이시여, 제 소명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저의 소명은 사랑입니다.

## 공지 사항

### 1. 손님 신부님 주일미사 집전 안내

2월 2일과 9일에 한인성당 주일미사는 '손상복 요한보스코' 신부님께서 미사를 집전해 주십니다.

### 2. 공동체 식사 및 간식 나눔 재개

2월부터 공동체 식사 및 간식 나눔이 다시 시작됩니다. 나눔을 위한 준비와 뒷정리를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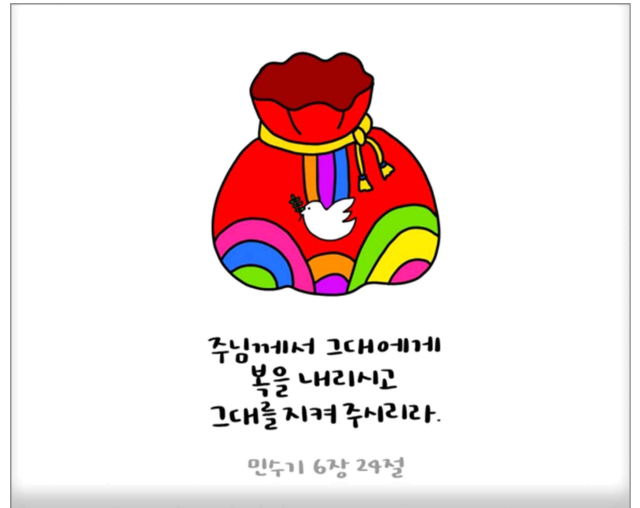
- \* 첫째 주 (2월 2일): 식사 나눔
- \* 셋째 주 (2월 9일): 간식 나눔

### 3.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가톨릭 교회의 입교성사인 세례성사를 위한 예비자 교리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예비자 교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2월 9일까지 성당 이메일 [canberra.kcc@gmail.com](mailto:canberra.kcc@gmail.com) 혹은 성당 카카오톡 채널을 통하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4. 여정 '시즌 3' 영적독서 모임 신청

- '영적독서 모임'의 새로운 시즌을 시작합니다.
- 일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목주기도 후)
- 기간: 2월 25일(화)부터 ~ 4월 중순까지
- 신청 접수는 성당 이메일로 신청자의 성함과 세례명을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신청기한은 2월 2일(주일)까지입니다.



### | 미사 참례자 수 |

1월 12일	유아·청소년: 13명	성인: 49명
1월 19일	유아·청소년: 16명	성인: 54명

### |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 전례 독서 봉사자 |

이번주 (1월 26일)	양홍석 베드로, 안영규 필립보
다음주 (2월 2일)	이상명 다니엘, 권순주 리타

### 미사 후 뒷정리 및 예물봉헌 |

이번주 (1월 26일)	요한반
다음주 (2월 2일)	루카반

### | 우리들의 정성 | (1월 18일 ~ 1월 24일)

봉 헌 금	\$ 389			
교 무 금	\$ 720			
구민식	권모순	김정수	남궁영근	손재호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지영
장일한	장호훈	정은영	조성희	주정자
한상지				

### | 기도 지향 |

- \* 故김성수 형제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 \* 복사단 아이들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 \* 서원석 미카엘 형제님의 건강을 위해
- \* 예비신자 양주영 자매님을 위해

###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